

오늘 입동 ... 쌀쌀해진 날씨, 월동준비 하세요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동(立冬)을 하루 앞둔 7일,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민들이 초가집에 새 짚으로 엮은 이엉을 얹으며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WTO 특혜 포기·RCEP 내년 서명

전남 농업 설 자리가 없다

중국 농산물 수입 쇄도 우려

전남지역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당장, RCEP 발효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RCEP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산 농산물에 대한 개방 수준이 한층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농업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전남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주도의 RCEP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 주요국들과의 FTA에서 맺었던 품목별 양허 수준이 더 낮아져 값싼 수입품이 쇄도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미 지난 2017년 '포스트-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RCEP가 타결될 경우 울무·감자·고구마·대두·녹두·팥과 같은 곡물류와 양파·마늘·배추·당근·수박·고추·생강 등과 가든 과채·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세계 최대 FTA인 RCEP에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중국과는 기존 FTA 체결 과정에서 낮은 수준으로 협상을 체결한데다,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중국이 포함된 만큼 향후 타결 품목·수준에 따라 전방위적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개방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성주 부연구위원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때 주요 품목에 대한 양허 수준이 낮았지만 RCEP가 발효되면 그 보다는 체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남의 경우 벼(20%)·밀(45%)·고구마(31%)·양파(37%)·마늘(18%)·겨울대파(97%)·배추(35%) 등 13개 품목 생산량이 전국 1위다. 이 때문에 FTA에다, RCEP까지 발효되면서 관세 추가 인하나 철폐가 현실화될 경우 수입산 농산물 쇄도로 전남 농업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업부 자료를 인용해 국내에서 체결된 9개 FTA가 최근 5년간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어업피해(생산감소액)만 458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조업 등 타 산업은 5876억원의 이득을 올렸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RCEP 타결로 국내 농어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어업이 정부의 FTA 추진으로 희생양이 된 만큼 제조업 등 수혜 산업과의 간극을 줄여나갈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어업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 떠나는 아시아나 착륙지는 어디?

본입찰 마감 ... 애경·현대산업개발·KCGI '3파전'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내 매각 마무리

제2 국제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7일 마감됐다. <관련기사 3면>

당초 예상대로 애경그룹, HDC현대산업개발, KCGI 등 3곳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SK, GS 등 유력 대기업의 '깜짝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입찰자들이 쏜낸 매입

가격에 관심이 쏠리지만, 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본입찰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이 보안 등을 이유로 이날 오전 직접 응찰 회사를 찾아가 관련 서류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

졌다.

본입찰 결과 예상대로 ▲ 애경그룹-스톤브릿지 컨소시엄 ▲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 ▲ KCGI-뱅크스트리트 컨소시엄 등 3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회사도 함께 '통매각' 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

와 자회사 경영권을 넘긴다.

애경그룹은 본입찰 마감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주간사의 지침에 맞게 준비를 마치고 입찰을 완료했다"고 아시아나 인수 참여를 공식 확인했다. 현대산업개발도 미래에셋과 함께 이번 인수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리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KCGI도 막판까지 SI를 구하기 위해 유력 대기업과 접촉하는 등 사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산업은 지난 9월 예비입찰을 통해 3개 컨소시엄을 '쇼트리스트'(적격 인수 후보)에 올렸고, 이날 본입찰을 마감했다.

금호는 앞으로 1~2주간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실사·협의를 거쳐 내달 주식매매계약 체결까지 모두 마쳐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외고·자사고 2025년 폐지 ... 일반고 전환

정부, 고교 서열화 해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관련기사 3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

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5·18 헬기조종사들 진실의 입 열까 ▶6면

도시디자인 - 스웨덴 스톡홀름 ▶14면

손흥민 123골, 차범근 넘었다 ▶20면



층층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층층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